

초록번호 : I-1-7

체 목	국 문	자궁경부암에 있어서 증상군과 무증상 조기검진군간의 병기 및 생존을 비교		
	영 문	Comparison of Clinical stage and Survival rate between Asymptomatic and Symptomatic Cervix Cancer patients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임현우, 이원철, 권용일, 황인영, 박종섭, 김훈교 가톨릭 의대 산업의학센터		
	영 문	HW Yim, WC Lee, YI Kwon, IY Hwang, JS Park, HK Kim		
분 야	역학	발 표 자	임현우	
발표 형식	구연	발표 시간		
진행 상황	연구완료 (√), 연구중 () → 완료 예정 시기 : 년 월			
<p>1. 연구목적</p> <p>자궁경부암의 조기검진에 의한 병기이전(stage shift)의 효과를 확인하고, 이를 연령별로 분석하여 조기검진 시작연령에 대한 간접적인 자료를 제시하고, 조기진단방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.</p> <p>2. 연구방법</p> <p>1988년 1월부터 1997년 9월까지 강남성모병원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새롭게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.</p> <p>병기의 확인은 FIGO stage에 따라 실시하였고, 무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진 후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된 경우와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증상이 있어 내원하여 검진 후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된 경우의 구분은 환자외래기록지에 작성된 주증상 소견에 의거하여 수집하였다.</p> <p>자궁경부암의 병기는 환자기록지에서 조직학적 병기를 조사하였으며 수술을 안받은 경우는 임상적 병기를 조사하였다.</p> <p>본인은 전혀 증상이 없었으나 집단검진결과가 이상이 있다는 소견에 의하여 병원에서 추적진단을 수행한 결과 자궁경부암으로 밝혀진 환자군을 I 군으로 하고,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면담에서 본인이 증상이 있었던 경우에 추적검사결과 자궁경부암으로 밝혀진 환자군을 II군으로 한 후에, I 군과 II군의 각각의 병기(stage)분포를 비교하였다.</p>				

3. 연구결과

1988년 1월부터 1997년 9월까지 강남성모병원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중 평가가 가능하였던 환자수는 1,092명이었고 나이는 23 ~ 97세 (중앙값: 46세)였다. 이중 무증상으로 조기검진을 통하여 진단된 예가 274명 (25.1%)이었고, 자궁경부암 증세를 주소로 내원하여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된 예가 818명(74.9%)명이었다.

자궁경부암의 병기는 조기진단을 통하여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된 총 274명 중 제 0병기는 210명(76.6%), 제 1병기가 56명(20.4%), 제 2병기가 7명(2.6%) 그리고 제 3병기가 1명(0.4%)였으며, 제 4병기는 증례가 없었다. 자궁경부암증세를 주소로 내원하여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된 총 818명중 제 0병기는 267명 (32.6%), 제 1병기 261명(31.9%), 제 2병기 187명(22.9%), 제 3병기 85명 (10.4%) 그리고 제 4병기는 18명(2.2%)로 두군에서 큰차이를 보이고 있었다.

5년 생존율을 비교하면 무증상군에서는 100%이었으나, 증세가 있어 병원 내원후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된군에서는 88% 이었다. 로그순위 검정법에 의한 생존분석에서 무증상군의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($p=0.0001$).

자궁경부암의 주자각증세의 빈도는 질출혈, 성관계후 출혈이 453명 (55.3%)로 가장 많았고, 냉대하, 요통, 복통의 순이었다.

4. 고찰

현재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된 환자중에서 무증상 조기검진에 의해 진단된 경우는 본 연구에서 25.1%이었다. 증세가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후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된 경우보다는 무증상 조기검진군에서 생존율이 높았고, 병기도 낮은 병기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되었다.